

미술

불안한 인간의 심리...김시연 '노르스름한' 전

2010 년 제 1 회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작가

기사입력: 2012/11/20 [11:13] 최종편집: © 문화저널 21



이영경기자 ✉



[문화저널 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처] 두산갤러리 서울에서는 11 월 22 일부터 12 월 30 일까지 2010 년 제 1 회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작가인 김시연의 <노르스름한>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사진과 설치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시연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금이나 비누, 단추, 바늘, 계란 껍질, 지우개 가루 등을 이용한 설치작품과 이들을 촬영한 사진을 이용, 인간의 실존적 고독과 소외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왔다.



작가의 작품에 주조를 이루는 흰색은 연약하지만 미묘한 존재감을 가지고 삶에서 느끼는 드러나지 않는 사소한 감정들, 슬픔이나 혹은 불안 등을 상징한다. 흑백이나 모노톤을 유지해온 그의 작품은 2011 년 ‘Thread’ 연작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규정된 색이 아닌 푸르스름한 색이 등장하면서 색상이 주는 특유의 감성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노르스름한’ 연작에서는 흰색 화면에 컵, 수저, 달걀 껍질, 비닐봉지, 종이컵 등의 일상의 물체들과 노르스름한 버터나 지우개 가루 등을 테이블 모서리에 불안정하게 배치해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태롭고 불안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담아낸다.

이영경 기자 lyk@mhj21.com

《 인터넷종합일간지(문화저널 21),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 Weekly Issue Focus News),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월간지(이코노미컬처 economy culture) 종합보도자료 수신 master@mhj21.com 》